

않아도 좁은 시장을 둘러싸고 양구상간의 대립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프랑스 規制局(DRG), 音聲서비스에 對한 競爭導入을 제창

규제국(DRG)은 작년 10월 11일, 「프랑스전기통신에서의 규제란?」이라는 자문 문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에서는 우선 EC정책인 1998년 1월 1일이전에 기본음성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프랑스텔레콤의 독점을 해체시키고 경쟁사업자를 인정하려는 DRG의 강력한 의사가 표명되고 있다.

이어서, 전기통신분야에서의 망베이스에서의 경쟁실시에 있어서 프랑스텔레콤의 네트워크확장 및 유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장래의 검토과제로서 열거되고 있다.

- 독립회선망(reseau independant)에서의 용량재판매나 회선임대의 가부
- 상기를 인정하는 경우의 요건
- 신규사업자참여가 프랑스텔레콤의 재무기반에 주는 영향
- 신규사업자에 의한 access deficit charge 지불의무의 유무
- 프랑스텔레콤의 보편적 서비스의 의무유지

또한 경쟁의 진전에 따른 규제기관의 권한강화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타리프규제와의 관련하여 현재의 규제기관의 시장개입권한을 명확하게, 나아가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고 있다.

DRG에서는 프랑스텔레콤이나 CATV사업자, 유저단체등 관계각부문으로부터의 의견청취를 11월 15일에 마감하고, 12월초순, 새로운 경쟁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전기통신법개정에 대해 론게우전대신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베트남에서 홍콩 ABC, 全國페이징서비스를 計劃

홍콩의 ABC커뮤니케이션즈(佳讖有限公司)는 앞으로 6개월이내에 페이징서비스를 전국의 주요도시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사는 호치민에서 시우전관리국과의 제휴에 의해 유료의 시험서비스를 제공중이었는데 금년 10월,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동서비스는 호치민시외에 본타오를 포함한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으며, 월이용료는 약 110美\$~약 260美\$가 되고 있다.

호치민에서는 이미 타이자본(시나와트라), 홍콩자본 및 호주자본이 각각 시우전관리국과의 제휴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현재의 가입자수는 회사전체 합계로 약 9,000명이나, ABC는 앞으로 1년간 5,000여명의 추가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처음으로 우전총국과의 포괄적인 합의에 입각하여 전국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인정받았다. 금년말까지 하노이 및 하이퐁, 94년중반에는 그밖의 주요도시에서 각시의 우전관리국과의 제휴에 의해 서비스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비스확장에 따른 동사의 초기투자액은 약 1,000만HK\$(약 1억 4,000만엔)가 예정되어 있다.

아세안, 3國間通信狀況改善에 대해 覺書交換

인도네시아의 PT인도셋트, 말레이시아의 TM, 타이의 CAT(타이통신공사)는 인접지역에서의 통신조건개선을 목적으로 한 협력각서를 10월 27일에 체결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남부가 형성한 지역을 「(제2의) 성장의 삼각주」로 위치시키고, 동지역에서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통신서비스의 향상, 수납요금의 방향별격차의 조정등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각사는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PT인도셋트사장격 CEO, Tjahjono Soerjodibroto씨)

현재 인도네시아발 말레이시아 수신 260루피아/6초, 타이수신 390루피아/6초의 IDD통화요금을 약 25%인하하여 각각 208루피아, 312루피아로 한다. Tjahjono 사장은 또, PT인도셋트가 NEC에 발주하여, 94년중반에 완성예정인 수마트라 북부의 판타이·셀만지구국(인텔셋트용)도 수마트라북부와 말레이시아, 타이간의